



상품 판매 실적은 2016년 486억원에서 2019년 4천424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WM사업부의 작년 연간 총수익은 5천411억원을 기록했으며, 1억 이상 고객 수(HNWI)도 2018년 말 8만6천134명에서 2019년 말 9만2천476명으로 늘어났다.

IB사업부는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문별 고른 수익을 시현하며 사상 최대 수익인 3천260억원을 달성,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주관 순위에서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유상증자 최대 규모 달인 두산건설&두산중공업 건을 대표 주관하며 이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법인영업(Wholesale) 사업부는 지난해 KIC(한국투자공사) 사상 첫 해외주식 국내 거래증권회사로 선정됐다. 2018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유치로 외부위탁운용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데 이어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랜드, 금융투자협회 등 민간기관 자금 유치에 성공하며 외부위탁운용 시장 비즈니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 고객 가치 고도화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한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자산관리(WM), 투자금융(IB), 트레이딩(Trading)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며 세전 이익 6천332억원, 당기순이익 4천764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WM사업부는 지난해 '과정가치' 평가 제도 도입으로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업계 최초로 영업점 PB(Private Banker)들의 평가 기준을 실적 중심이 아닌 '과정가치' 기반의 활동성 중심으로 전환했다. '과정가치'란 영업직원이 고객을 만나기 위한 준비부터 고객의 니즈 파악, 최적의 솔루션 제공,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위탁매매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구조에서 탈피해 펀드, 신탁, E/DLS 등 금융상품 수익 중심의 안정적인 리테일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IB 역량을 활용한 인하우스



정영채 사장



트레이딩 부문 역시 다양한 운용전략과 정교화된 리스크관리 기법, 차별화된 구조화 상품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최고의 수익성을 유지했다. 또 지난해 해외 현지법인 6곳에서 당기순이익 350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손익이 대폭 확대되며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NH투자증권은 2020년 핵심 경영전략을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대표 플랫폼 플레이어(Platform Player)'로 설정했다. 세부 실행계획으로 ▲ 차별화된 투자은행형(WM-IB-S&T) 플랫폼 구축 ▲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하는 혁신과 운영체계 개선 ▲

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 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저성장·저금리 환경에다 고객들의 니즈가 다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고객 니즈를 빠르고 정확히 분석하고, 비즈니스 간 연계력을 강화해 고객별로 최적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대표 직속의 리스크관리본부 및 상시 의사결정 기구 등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고, 지속적인 선제 조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다.

NH투자증권의 ELS 자체 헤지 규모는 2018년 말 대비 올해 3월 말 기준 약 30% 이상 줄었다. 외화 신규자금 운용을 제한하고 포지션의 리밸런싱을 진행해 변동성을 줄였으며, 부동산 PF 규모도 선제적으로 조정해 신용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수준으로 제한했다.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정기평가에서 NH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국내 증권사 중 최고 수준인 AA+(안정적)로 유지했다.

NH투자증권은 향후 조달금리 책정이 유리한 자금 조달이 더욱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NH투자증권의 CP 및 전자단기사채는 17~19%대에서 발행되며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53세 김건우씨

두 아이의 아빠

첫째 아이의 유학 준비

클래식한 취미

결혼 20주년 여행 계획

# 내 인생에 딱 맞춘 투자! NH크리에이터 어카운트

NH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는  
고객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아는 PB와  
자산관리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고객 맞춤형 투자가 가능합니다

## NH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는

- ※ Risk Budgeting부터 지속적인 리밸런싱까지, NH투자증권 전문가 그룹의 차별화된 노하우가 함께 합니다.
- ※ 고객의 니즈 파악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모델포트폴리오 운용까지, 어떤 금융환경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자산관리입니다.
- ※ 전문가의 넓은 시야, 시장에 대한 깊은 분석의 합리적인 운용 시스템, 확장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은 한 차원 진화된 투자 플랫폼입니다.

※ 본 투자 일임계약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위험성, 손익구조,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분기단위 후취합니다. [일반형]후취 연 2.0% [성과형] 후취 연1.2%+성과보수 \*성과보수는 개별협의 ※ 계좌별로 운용되므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편입자산의 교체가 있을 경우, 편입 중인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744호(2020-04-14~2021-04-13)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